

지난해 하반기 호남권 출생아 늘고 인구 유출 줄었다

한은 모니터링 결과, 하반기 경기 회복... 제조·건설 둔화 속 서비스업 완만한 회복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전북본부, 목포본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중 호남권 경제동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호남권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인구 순유출 폭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호남권 경기는 상반기와 비교해 회복 수준을 유지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은 소폭 감소했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소폭 늘어난 반면 설비투자는 다소 줄었다.

제조업은 반도체와 석유정제 생산이 늘었으나 자동차·석유화학·철강이 부진해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했다.

건설업 역시 민간부분의 부동산 사업성 금융(PF) 부실 우려와 분양시장 침체, 공공부분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

감소 등으로 상반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업은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과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내수 회복 흐름이 일부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상반기 감소에서 벗어나 하반기 들어 증가로 전환됐다. 임금근로자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8000명 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2.2%로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은 확대됐으나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물가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

주택매매가격은 상반기 하락세에서 벗



어나 하반기에는 회복 수준을 나타냈다. 주택매매수급동향지수는 여전히 100을 밑돌며 공급 위위 흐름이 이어졌다.

하반기 말 호남권 인구는 489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7~10월 출생아 수는 760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7~11월 인구 순이동은 순유출이 지속됐지만 유출 규모는 전년보다 줄었다.

신영길 기자



전남도, 남도장터-시군물 통합해 효율성 강화

고흥·영암·완도군과 협약... 1회 가입으로 4개물 함께 이용

전라남도는 28일 남도장터,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과 함께 '남도장터-시군물 연합 시스템 업무협약'을 하고, 남도·시군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 시스템의 핵심은 '사용자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 강화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시군별 쇼핑몰을 이용할 때마다 각각 회원 가입을 해야 했지만, 연합 시스템 도입으로 한 번의 가입만으로 남도장터와 3개 시군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운영 측면에서도 대폭적인 효율화가 이뤄진다. 남도장터가 구축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주문·발주·정산 등 일괄 처리함으로써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개별 시스템 유지보수에 들어갔던 중복 비용을 해소했다.

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2279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1930대, 전기화물차 330대, 전기승합차 19대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해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최대 754만원 ▲전기화물차 소형 기준 최대 1365만원 ▲전기승합차 중형 기준 최대 6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차 보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하고, 택시·택배 등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5%를 별도로 배정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광주시, 올해 전기차 2279대 구매 보조금 지원

승용차 최대 754만원·화물차 1365만원·승합차 6500만원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매매·폐차)하는 개인에게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가족 간 자녀나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지원금은 국비 최대 100만원, 시비 최대 30만원으로, 노후 차량 감축과 친환경차 전환을 동시에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20~30%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택시 250만

원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광주시에서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을 둔 기업·단체 등이다. 기존 '광주 거주 90일 이상' 요건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해 시민과 청년층의 전기차 구매 접근성을 높였다.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가 광주시 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완료 후 광주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한다.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과 대상 차종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누리집과 무궁화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대기환경 개선 정책"이라며 "친환경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2700억원의 융자 재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투입한다.

광주시는 우선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으로 19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지원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중점산업 창업·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구분해 대상별로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배정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광주시에서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등이 다.

중점산업 창업·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창업기업 ▲업력 10년 이하의 벤처기업 또는 수출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광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700억 지원

상반기 1900억원 집중 투입... 업체당 최대 3억원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은 광주은행이 납부한 지원금으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연 0.5%p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급 은행은 광주은행으로 한정된다.

지원 한도는 두 자금 모두 업체당 최대 3억원이다. 광주시 인증을 보유한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과 같은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광주시는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우대기업은 1%를 추가로 보전한다.

또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이자 1%를 추가 지원해 우대기업이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최대 4%까지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진흥생일자리재단이 관리하는 기업융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재단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발급받은 뒤 12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이자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인 기자

1월 광주·전남 기업심리 반등... 제조·서비스업 모두 개선

광주·전남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새해 들어 소폭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생산과 신규 수주가 늘고 서비스업 매출과 수익성도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심리가 전월보다 나아졌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527개 사업체(제조업 253개·비제조업 274개)를 대상으로 1월 기업경기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가 83.7로 전월보다 5.4포인트(p) 상승했다.

다음달 전망 CBSI도 80.6으로 전월보다 1.7p 올라 기업들의 심리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국 제조업 CBSI(97.5)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제조업 CBSI 상승은 생산(+2.8p)과 신규 수주(+1.5p) 개선이 주도했다. 실제로 제조업 생산 BSI는 78로 전월보다 13p 뛰었고, 신규 수주 BSI도 74로 7p 상승했다. 채산성 BSI 역시 67로 7p 올라 수익성 여건도 다소 나아졌다.

반면 매출 전망은 다소 약화됐다. 다음달 제조업 매출 전망 BSI는 62로 전월보

다 5p 하락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비판적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도 회복 흐름을 보였다. 1월 비제조업 CBSI는 92.2로 전월보다 2.9p 상승했고, 다음달 전망치는 92.4로 8.8p 올라 체감경기 개선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 이는 전국 비제조업 전망 지수(88.4)를 웃도는 수준이다. 비제조업의 매출 BSI는 70으로 6p, 채산성은 73으로 3p, 자금 사정은 69로 1p 각각 상승했다. 다음 달 전망 역시 매출(+10p), 채산성(+5p), 자금 사정(+6p) 모두 큰 폭의 개선이 예상됐다.

그러나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여전히 높았다. 제조업에서는 경쟁 심화, 내수 부진,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주요 경영 애로 요인으로 꼽혔으며, 특히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인력난·인건비 상승의 비중이 전월보다 늘었다.

비제조업 역시 내수 부진과 인력난·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가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자금 부족과 인력난 부담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원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 사과